

DOMUS

5월호

이 번호는 Gillo Dorflès의 밀라노 가구축제 2006에 대한 리뷰 및 인터뷰, Giancarlo De Carlo의 베이루트 주거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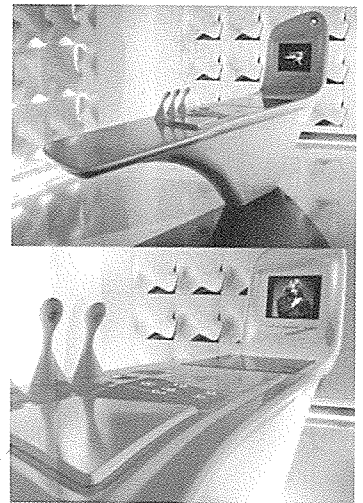
계획안, Toyo Ito의 진행중인 프로젝트인 Torre Vieja 휴양센터, Amos Gitai의 다큐멘터리의 여정을 재조명하는 기획기사 그리고 2006 프리츠커 상 수상자인 브라질 건축사 Mendes da Rocha의 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커버스토리로 다루어지고 있는 밀라노 가구축제관련 기사에서 필자는 정력적으로 많은 영역의 디자이너와 조우하면서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와 재료의 사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토해내고 있다. De Carlo의 작업은 베이루트의 중심 지역에 주거블록을 제시하면서 레바논 건축의 특징으로서의 절충주의적 특징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잔존시키는가에 집중하고 있다. Relaxation Center에서 Toyo Ito는 야심찬 랜드스케이프 프로그램을 몇 개의 셀로 분산된 스파가 있는 요양시설에 적용시키고 있다. 한편 Mendes da Rocha는 미적, 기술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사로 소개되고 있으며 그의 미술관 건물을 중심으로 그의 건축관과 건물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다.

■ A journey with Gillo Dorflès into a world of geodesign gathered in Milan for the Furniture Fair 2006
: 밀라노 가구축제 2006 리뷰 ·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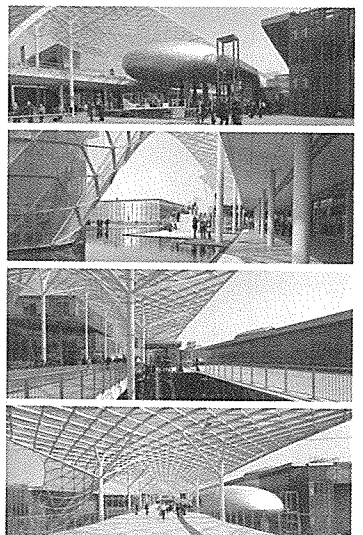
다소 긴 제목의 이 기사는 표지와 특별 기고문의 형식으로 여러 페이지에 걸쳐 다루어지고 있다.

1910년에 태어난 화가이면서 수필가이며 동시에 비평가인 Gillo Dorflès가 2006년 4월 6일 하루 동안 만난 12명의 디자이너(혹은 팀)에 대한 리뷰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돌체 앤 가바나의 Ron Arad와 Phillip Starck, Ingo Mauer와 같이 익숙한 이름이 보인다. 이 중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인텔리전트 주방을 설계한 Zaha Hadid와 밀라노 가구축제가 열린 전시센터를 설계한 Massimiliano Fuksas에 대한 기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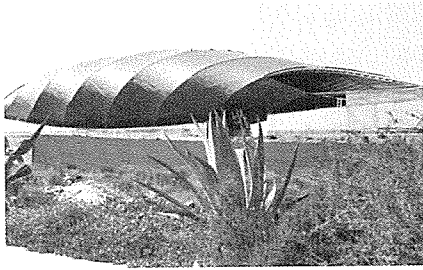
Ernestomeda and Scholtes의 빌트인 기구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Zaha Hadid의 주방환경 디자인은 보다 즐겁고 보다 가사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회귀하는 최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건축사의 작품'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Hadid는 유연한 조형성을 표현할 수



Zaha Hadid/intelligent kitchen



Massimiliano Fuksas/exhibition center



Toyo Ito/relaxation center

Fuksas가 설계한 전시센터는 상상력과 오락적인 요소들이 기술적 능력과 적절히 결합된 결과물이다. 파빌리온들은 단순하기에 고도로 기능적이면서도 기억하기 쉬운 것이다. 이 건축물은 매우 단순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파빌리온이 각각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면 아무런 느낌도 주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 각각의 파빌리온은 다양한 '여정'이 되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 La Concha Negra(the Black seashell) / Torrevieja 휴양센터
- 스페인, Torrevieja · Toyo Ito

스페인 남동부 해안가에 있는 Torrevieja는 자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휴양도시이다.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를 바탕으로 북유럽과 스칸디나비아 반도로의 저가 항공선이 연결되면서 여름에는 평상시(6만명)의 10배에 달하는 인구가 여가를 즐기 위해 이 도시로 몰려든다.

Torrevieja 지방 당국은 2001년 Toyo Ito에게 8헥타르의 대지에 휴양 및 요양 시설 디자인을 의뢰했다. 대지는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호수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단계로 나누어 시공되는데(2008년 완공예정) 현재 1단계 프로젝트가 거의 완공 수준에 이르렀다. 이 휴양센터는 의심할 바 없이 '헬스 투어리즘(건강 및 휴양을 위주로 하는 관광사업)'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지향하는 도시적 특징을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1단계 프로젝트는 탈의실과 샤워시설을 갖춘 인포메이션 센터와, 레스토랑, 야외풀장 그리고 몇 개의 인공 사구(砂丘)를 포함한 외부공간과 식재를 포함한다. 염호 주변의 '황량한 아름다움'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Torrevieja 휴양센터

의 주요 디자인 모티브는 주변 해변에서 서식하고 있는 고둥과 같은 조개류의 껍데기였다.(La Concha Negra는 '검정 고둥(the black seashell)'이라는 뜻으로 이 프로젝트의 닉네임이기도 하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건물의 기하학적 구조와 시공은 매우 복잡하다. 셸은 5개의 Bezier 곡선(몇 개의 임의의 점을 지나는 3차원 곡선)형태의 강재와 강재사이를 연결하는 목재 장선을 사용하여 구조를 형성하고, 외부를 합판으로 덧대 마감한다. 결과적으로 생명체와 비슷한 방식의 외골격이 만들어진다. 추가적으로 상부구조를 바닥판에 고정시켜 전체가 일체화 되어 강성을 높이고도록 고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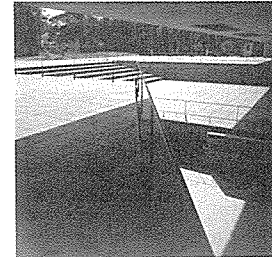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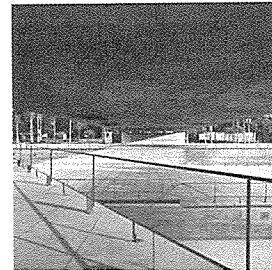
■ Extensive and Intensive(외연적인, 동시에 내포적인)

- 에세이/ Manuel DeLanda

건축가는 길이, 면적, 부피와 같이 물리학자들이 '외연적'이라고 일컫는 대상을 다루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특징은 일 미터의 자를 50cm 두 개로 나누듯 기능적으로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내포적'이라고 설명되는 이런 특징들은 온도, 압력, 속도, 밀도 등과 같은 것으로 '외연적'인 특징들과 달리 기능적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가령 90도의 물을 반씩 덜어낸다고 해서 온도가 45도로 내려가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다.

일반적인 지도는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점유한 각각 다른 면적의 영역과 해안선의 길이, 국경선 같은 것 등을 알려준다. 외연적이다. 반면 기상학 지도는 내포적이다. 고(저)기압과 온난(한랭)전선의 위치, 각 지역의 풍속 같은 것들은 유동적이며 중간과정적인 성질의 것이다. 폭풍우와 허리케인, 구름의 형성은 각 지역의 연속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차이가 없다면 수증기에 의한 기상현상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즉 외연은 프로세스의 결과물을, 내포는 프로세스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 이 둘 간의 구분은



mendes/brazilian sculptor museum

열역학의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하중을 견디는 구조물을 설계할 때 디자이너는 내포적 형태인 압력을 고려하면서도 중국에는 외연의 형태인 하중으로 결과를 낸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몇몇 내포적인 특성들이 실제로는 두 개의 외연적 가치들 간의 비율에 의해 표현된다는 점이다.(압력=하중/단위면적, 밀도=질량/단위부피) 또한 이런 내포적 가치들은 실제 재료의 지점에서 정의된다. 19세기에 압력의 개념이 하중의 개념을 대치한 것은 압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하중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훨씬 대비하기 수월했기 때문이다.

그간 열역학 분야의 주요 관심은 결과로서의 평형상태-외연적-였다. 하지만 평형상태는 '프로세스'를 형성할 수 없다. 한편, 평형상태로부터 벗어나면 '프로세스'의 숫자와 다양성은 높아지게 된다. 만약 어떤 시스템에서 내포적 차이들이 많을수록 그 시스템은 많은 가능성과 잠재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의 비평형상태에 대한 패러다임이 득세를 하면서, 공학적 실습들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그 변화는 내포적 힘의 자율적 조절에 달려 있게 되는 것이다.

■ Concrete Poetry(콘크리트의 시학)

- 인터뷰/ Mendes Da Rocha

극소수의 건축사들만이 미적인 동시에 기술적으로 완벽한 형태와 디자인의 통합을 보여준다.

세싱과 기타 작업이 한편으로 진행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디어와 창조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에게서는 나의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 단순히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이유에서 나는 내 작업을 다양한 장소들과 공간에서 조직하고, 꾸준히 아이디어 자체를 위해 시간투자를 하고 있다.

HUO : 그러한 당신의 태도들이 동시대적 현실에 저항하는 형태인가?

MdR : 사실... 그렇지 않다. 나는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위선적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나는 내 스스로의 전략을 통해 나의 목표가 금전적 성공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다.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한 업무조직의 방식이 아닌 지적 유대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내가 '적절한 무질서'라고 묘사하곤 하는 자유로운 형태로 서로에게 기여하고 있다.

HUO : 당신이 설계한 문화시설과 미술관 건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MdR : 내가 설계한 각각의 미술관들은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996년에 작업한 FIESP 문화센터는 현존하는 구조의 내부부터 시작해서 그 내부가 하중과 재료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구조와 명백히 구분되는 것을 추구했다. Pinacoteca do Estado(1993)는 동시대의 건축적 언어가 19세기에 작업한 벽돌작업과 섞이지 않고 병존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복원작업이었다. 브라질 조각 미술관(1988)은 나에게 다양한 레벨에서의 수공간이 있는, 큰 콘크리트 캔틸레버 슬래브와 벽으로 둘러싸인 소유주를 떠올리게 한다. 기본적으로 구조물이 지어지면 그것은 거대한 콘크리트 조각이 된다. 위에 언급한 세 작품에는 모두 시간의 흐름과 건축이 그 흐름의 일부가 된다는 인식이 있다. 마치 누벽(樓壁)처럼 말이다.

내 생각에 미술관중의 으뜸은 바로 충돌과 시간의 적층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Stefano Boeri(이하 SB) : 당신의 작업은 국가에 의해 진행된 것이 많다...

MdR : 식민지의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민간 재원의 충당이 여의치 않다. 그런 국가에서(건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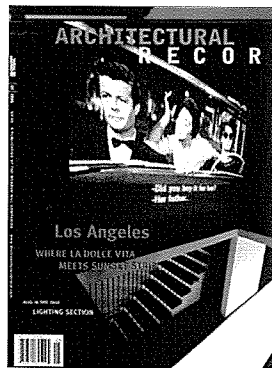
공적인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좁은 시장에서 설계 작업은 사변적인 시나리오를 전개하는 전쟁터가 되어 간다. 문제는 갈수록 공고해지는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건축의 의무는 많이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재앙을 피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적 차원의 문제들은 민간 기업에 의해 해결책이 제안되기 어렵기 마련이다.

HUO : 요즘 새로운 미술관들이 민간 기업에 의해 지어지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

MdR : 심각하다. 미술관이 사적인 소유물이 되는 것은 모순적이다. 나는 공공의 것과 사적인 것 사이에 흥미로운 관계를 발견했는데, 사적인 것의 가장 큰 욕망은 공적이 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시나 책을 써 공공에 내지 않으려는 시인 혹은 작가가 없듯이 사적인 영역의 소망은 그들 스스로가 '선언'이 되고 공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언'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마치 시가 종이위에 인쇄되어 물질이 되는 것처럼.

SB : 건축과 정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당신에게 유토피아는 무엇인가?

MdR : 건축과 현대도시는 온전히 정치적인 것이다. 이 공간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정치적이다.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도덕적 의무이다. 나는 남미대륙에서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유토피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ARCHITECTURAL RECORD

5월호

5월호는 L.A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

사와 작품에 중심이 실려 있다. 건축붐이 일어나고 있는 다운타운의 현황과 Eric Owen Moss의 실험적인 시도들, Cesar Pelli의 red building, Greg Lynn 첫 번째 주거 프로젝트 등에 대한 간략한 기사가 지나면 젊은 세대의 L.A 건축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Christopher Hawthorne의 비평과 모포시스의 Thom Mayne, Joel Kotkin, Frank Gehry이 보고 있는 L.A의 문화적 의미와 미래상을 만나게 된다. 작품리뷰에서는 L.A적 정서가 물씬 풍기는 미술관과 주택, 모포시스의 Science Center School을 다루고 있으며, 건물유형 연구에서는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 워싱턴에 지어진 도서관들이 소개되고 있다.

■ 비평 : 우리는 새로운 L.A 건축사 세대에 게 무엇을 기대하는가?(What can we expect from the new Generation Of L.A architects?)

많은 면에서 현대 로스앤젤레스는 건축적 실험을 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이다. 젊은 건축사들에게 상당한 위험과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는 많은 수의 의뢰인과 다른 곳보다 건축화의 가능성이 높은 도시인 것이다.

현재 L.A 씬을 지배하는 Frank Gehry, Thom Mayne, Eric Owen Moss 등을 위시한 논쟁적이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건축사들은 도시의 근린에 대한 연구와 자신들의 토대를 내리고 고유의 건축어휘를 만들어낼 여유가 있었다. 요즘의 젊은 건축사에게 그런 여유는 사치에 가깝다. 그들의 과잉되고 평탄하지 않은 초기작들은 비평가와 블로거들에게 즉각적으로 해부되고 분석된다. 만약 프랭크 게리와 모포시스가 더 많은 공간과 저가의 대지가 있었다면 지금 후대들은 더 많은 유산들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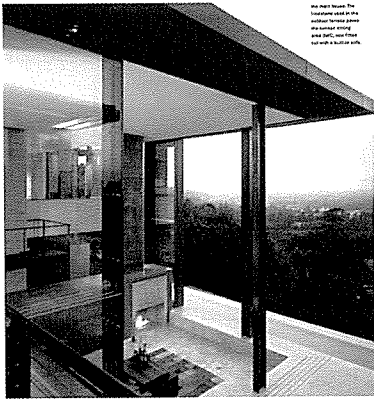
아직까지 L.A와 젊은 건축사들의 결합은 충분히 영글지 않았다. 하지만 L.A에서의 삶을 바꾸고 대변하는 그런 건축물을 만드는 설계조직들이

론 두권의 책에 대한 리뷰가 게재되었다.

: Robert Bruegmann이 쓴 『Sprawl』,
Richard Ingersoll의 『Sprawltown』

■ 작품 리뷰

이번에 소개된 작품들은 L.A적 정서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Redelco House에서 Pugh+Scarpa는 맵시있게 근대 미국주거를 변주하고 있으며, Clive Wilkinson은 미니멀리즘의 쿨함을 로스앤젤레스의 매력과 결합시켜 L.A 다운타운내의 FIDM 디자인 스튜디오에 표현하고 있다. Lorcan O'Herlihy의 JAI House는 영화와 동양적 명상이 산타모니카 산과 어울려 색다른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모포시스는 로스앤젤레스 박람회 공원에서 Science Center School을 통해 강력한 존재감을 발산한다.



• Redelco House

로스앤젤레스, Studio city / Pugh+Scarpa
이 주택에서 확인되는 단순함과 여유는 1920년대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루돌프 슌들러, 리처드 노이트라의 주택에서의 감성을 환기한다. 주택은 크게 스틸 프레임의 거실과 응접실과 빌리온과 주 침실과 주방이 있는 나무 프레임 구조의 두 개의 볼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 벨리의 뷰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유리벽은 북쪽과 동쪽 두방향으로 밀리는 미서기로 되어 있다. 내부의 스틸로 된 브리지는 오피스 파빌리온을 주택과 연계시키고 석회암은 거실의 외부와 내부에 동시에 사용되어 공간감과 영역성을

외부로 확장한다. 침실은 거실과 시선적으로 적당히 차폐되어 있는 동시에 연장되어 있으며,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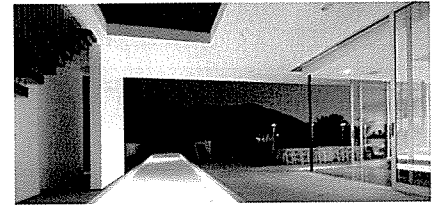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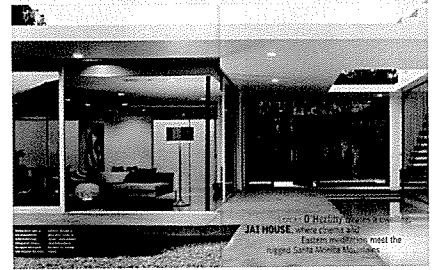


제 계단은 내부 스틸 브리지와 연결되어 주택의 각 부분들을 연결한다.

• FIDM Design Studio

로스앤젤레스 / Clive Wilkinson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변화는 매우 활기차다. 하지만 많은 건물이 관습적으로 지중해와 캘리포니아 방갈로 혹은 뉴욕의 로프트 스타일을 차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FIDM Design studio의 리노베이션 디자인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다. FIDM은 패션, 인테리어, 그래픽, 영화 세트 디자인과 더불어 마케팅과 경영을 특화하고 있는 사립대학이다. 1926년에 지어진 스탠다드 오일 빌딩의 은행을 리노베이션 하면서, Clive Wilkinson은 로비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L자형의 스튜디오는 컴퓨터 작업과 개인 연구를 위해 서쪽의 사각형의 스튜디오는 도면과 그룹활동을 위해 계획했다. 공간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 골조의 대부분이 노출되었으며, 팝 컬처의 흔적이 담긴 프린팅은 산들 바람이 부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두 개층 높이의 공간에서 세 개의 눈길을 끄는 공간이 천정에 부착되어 있다. 동쪽 스튜디오의 tank는 푸른색 유리나 네온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내부는 그룹 미팅을 위한 장소로 사용된다. 여기에 멀지 않은 장소에 pool이 있으며 상부는 전등갓 형태로 막이 쳐져 있다. 이 '전등갓'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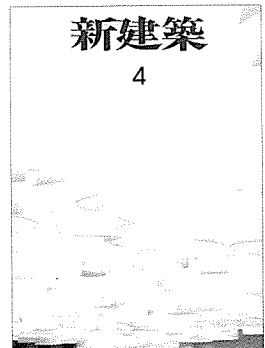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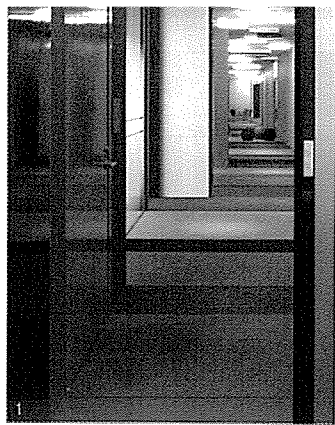
내부에는 야자나무가 프린팅 되어 있고 외부는 예전의 천공 프린터로 출력된 작업같은 구멍들이 뚫려있다. 서쪽의 스튜디오에는 ㄷ자형태로 구부러진 공간이 들려져 있는데 이 공간은 토론을 위한 공간이다.

• JAI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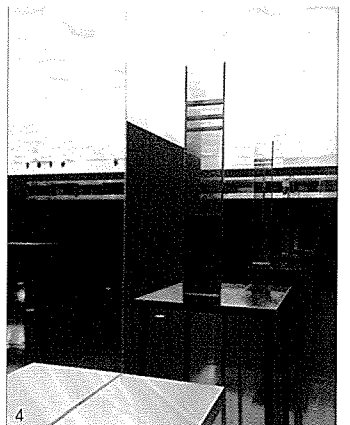
로스앤젤레스 / Lorcan O'Herlihy

Jai House는 건축주의 동양 명상과 자연과의 교감에 대한 관심과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라는 신분에 대한 대응이다. 그들은 O'Herlihy에게 요가 스튜디오와 영화를 틀수 있는 공간을 요구했다. 'Jai'는 산스크리트어로 '환영', '평화', '멋진'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이다. 슬라이딩 도어는 거실과 응접실이 직각으로 만나는 두면을 완전히 개방하며 이 공간을 풀장 있는 베란다로 변화시킨다. 주 출입구는 유리로 되어 있는데 독특한 '비경계감'을 느끼게 해준다. 주출입구의 양쪽에 모두 외기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2층의 "영화관"에서는 1층의 풀장과 철선으로 지지되는 계단을 볼 수 있다. 위층은 양쪽으로 돌출되어 캔틸레버 박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입구에 있는 일본식 연못(koi pond)은 주택을 가로 지르는 얇은 풀(lap pool)로 연





1. 시마 시마 L사이즈
2. 엘리 에이지 오피스
3. BBH Tokyo
4. Xel-Ha by afloat
5. LOTUS BEAUTY SALON



알 수 없으나 소개된 작품의 양을 보면 웬만한 신진축지의 특집의 규모를 넘어선다. 총 16개의 작품이 소개되었으며, 작품의 종류 또한 오피스와 상점, 뷰티샵 등 다양하다.

■ 건축사의 인테리어 디자인

▶클라인 다이삼 아키텍츠(Klein Dytham architects)는 총 3개의 작품이 소개되어 가장 많은 작품이 소개되었다. 「시마 시마 L사이즈」는 금융·부동산투자·기업재생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사 파트너스」의 오피스로 클라인 다이삼 아키텍츠는 이번이 이들의 오피스만 벌써 5번째 작업이다. 회사의 로고마크로부터 차분한 푸른색과 회색을 따오고, 여기에 밝은 핑크색을 곁들여 세련되면서도 발랄한 스트라이프 무늬를 사무실 공간에 부여하였다. 이 스트라이프 무늬는 바닥과 벽을 온통 장식하고 있는데, 스트라이프 무늬가 적용된 곳은 복도와 미팅룸 공간들이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스트라이프 무늬는 전 오피스 공간에 걸쳐 그 존재를 드러내 사무실 인테리어의 강한 중심적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 「엘리 에이지 오피스」에서는 완전히 다른 컨셉을 보여주는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오피스 속에 꾸며진 외부공간과 그 안에 놓여진 '하우스'라는 개념이 적용되었다. 목재로 덮여진 L자형의 복도공간은 마치 옥외 테크를 연상시키고, 그 안에 미팅 룸과 미팅스페이스들을 만들어 놓았다. 사무실 공간에서 릴렉스할 수 있는 옥외공간과 같은 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이를 고객의 접객공간으로도 활용하는 것이다. 「BBH Tokyo」에서는 '아이디어 팩토리'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 BBH는 도쿄, 런던, 뉴욕 등에 오피스를 갖고 있는 브랜드 매니지먼트 회사이다. 리바이스, 조니워커 등 글로벌기업들이 고객인 이 기

업을 위해 마련된 개념이 '아이디어 팩토리'인 것이다.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내놓은 것이 생명인 이 기업을 위해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공장이라는 개념이 제안되었다. 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업무공간과 리셉션 공간을 구획하고 있는 수납함으로 이루어진 벽이다. 이를 설계자는 '아이디어박스'라고 이름 붙였다. 생산해낸 아이디어들이 수납되는 벽인 셈인데, 통상적인 서류철을 수납하는 가구의 형태가 아니라 물건을 담아두는 상자들을 쌓아 둔 모습을 해 공장의 이미지를 부여했다. 책상과 컴퓨터가 놓여져 있는 딱딱한 업무환경 외에도 자유로운 발상을 유도할 수 있는 개방적 공간 또한 필요했는데 '팔레트 퍼니처 스페이스'가 이러한 공간이다. 기증기로 화물을 옮길 때 사용되는 정사각형의 운반선반을 이용해 만든 테이블과 소파가 이곳에 자리 잡아 직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장의 이미지를 빌려온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컨베이어 벨트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오피스 공간이다. 줄지어 놓인 책상들은 낮고 기다란 붉은 색의 수납장에 모두 연결되어있다. 붉은 색의 수납장은 공장의 생산품을 실어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를 연상시키는데, 여기에 붙어 있는 책상에서 직원들이 생산해내는 아이디어가 마치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이 실제로 아이디어의 생산에 어떠한 작용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오피스에 걸맞은 유틸리티 넘치는 디자인임에는 틀림없다.

▶아오키 준과 나카무라 히로시는 각각 뷰티살롱(미용실)의 인테리어를 선보였는데, 아오키 준은 천정에, 나카무라 히로시는 바닥의 디자인에 표현을 집중하였다. 아오키 준이 설계한 「Xel-Ha

by afloat」는 750개의 '워른시트(일본 전통 和紙를 절여 반짝거리게 만든 것)'를 이용한 조명이 사용되었다. 이 재질은 빛을 잘 산란시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재료이다. 이 워른 시트를 곡면으로 만들어 각각 하나씩 형광전구를 감싸게 했으며, 이러한 조명 패턴은 미용실의 천정 전체를 뒤덮고 있다. 천정이 모두 거대한 전통의 셰이드로 사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살롱 공간의 분위기는 이 조명에서 시작되며, 또 완성되는 것이다. 반면 나카무라의 「LOTUS BEAUTY SALON」은 독특한 바닥면을 이용해 공간을 꾸미고 있다. 건축주로부터 요구받은 조건은 고객들을 개별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미용실이었다.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칸막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칸막이로 구획된 공간이 주는 답답함과 벽의 압박감이 문제였다. 여기서 고안해 낸 아이디어가 서서 일하는 스태프에게는 거대한 오픈공간으로 인지되고, 앉아 있는 손님에게는 개실(個室)로 인지되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었다. 서있는 사람의 가슴 높이의 칸막이를 설치하면 이와 같은 것이 실현되지만 나카무라는 더욱 더 일체화되고 독특한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바로 지면을 파내려가면서 원형의 공간들을 만들고, 파내려간 깊이를 사람의 가슴높이 정도로 하는 것이다. 비교적 넉넉한 공간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이 형상은 내부공간으로 진입시에는 파내려간 깊이가 낮아 100평 규모의 살롱 내부가 한 눈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리셉션 공간을 지나면서부터 점점더 파여진 바닥이 낮아져 각각의 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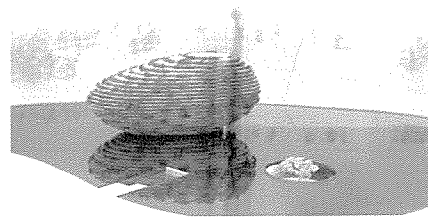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지만 이번 호에서는 특히 신진 건축사무소들인 '스튜디오 마소'와 '유르겐 마이어 H.'의 최신작품들을 4-5개 묶어서 인터뷰 기사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최신작 특집' 속의 작은 작가 특집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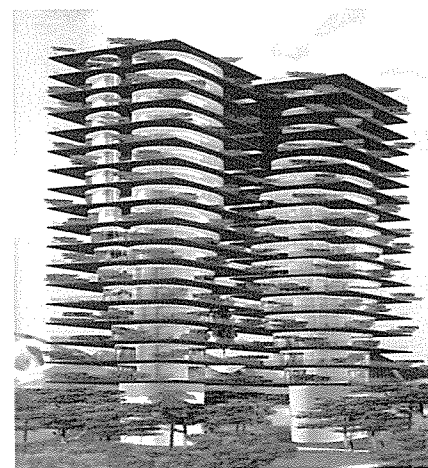
■ 스튜디오 마소(Studio Massaud)

스튜디오 마소를 이끄는 장-마리 마소(Jean-Marie Massaud)는 1966년 프랑스 툴레즈 태생으로, 1990년 파리 국립창작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마크 베르티에와 함께 작업한 도시계획 사업이 그를 디자인과 건축의 융합으로 이끌어 공업제품에서부터 가구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감성, 불가사의함, 그리고 생명의 감각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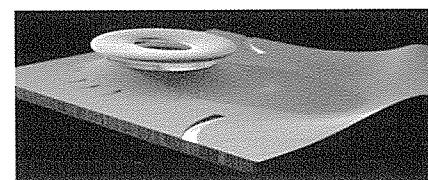
이제까지 '아마하 오프쇼어 나 '르노', 이태리 가구메이커인 '카펠라'와 '까시나', 그리고 아르



만 호텔



Life Reef



볼케이노 스타디움

마니와 바카라와 같은 기업들과 일을 했다. 또한 수 차례 상을 수상한 바 있는 그의 작품들은 암스테르담, 시카고, 런던, 리스본, 파리, 취리히 등지의 디자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와 같은 디자인 활동을 계속하면서 2000년에 그는 다니엘 포제와 함께 스튜디오 마소를 설립하여 건축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분야를 넓혔다. 이번 호에서는 그의 최근 계획안들과 가구 디자인들을 소개하고 있다.

제품 디자인에서 시작한 건축사이기 때문일까? 그의 디자인은 사뭇 신선한 면이 있다. 그의 초기 건축활동은 예상하듯이 인체이러 디자인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스튜디오 마소를 설립한 2000년에 작업한 「세포라 블랑」이나 2002년의 「HIP」와 같은 작업들이 그의 가구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인테리어 디자인이었다. 이번 호에 소개된 그의 최신작들도 가구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인테리어 디자인에 상당한 완성도를 보여준다. 세심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에 반해 건물 전체의 구성은 매우 개념적이면서 단순하고 과감한 구성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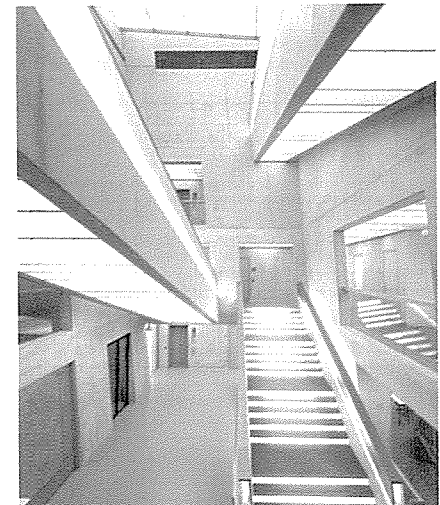
멕시코 푸에르토 발라타에 계획된 「만 호텔」은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걀 모양의 섬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호수 속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통해 진입하는 이 호텔은 호수 밑 지하에 로비와 스파시설을 두고, 지상부의 객실은 수목으로 덮여진 외피로 감싸져 있다. 「정신과 육체의 행복에 봉헌된 전당」이라는 설계자의 컨셉은 작은 호수 위에 평온히 고립된 섬의 이미지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호수의 물은 생명적인 에너지로서의 은유적 의미까지도 부여받고 있다.

아파트먼트 하우스인 「Life Reef」는 단위 주호 유니트가 아니라 개별 필지를 적응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이미 여러 건축사들에 의해 제시된 바 있었던 개념이지만, 현실의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았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Life Reef」는 「살기 위한 기계」가 아니다. 이 타워들은 집적된 사유지들이며, 각자 고유의 풍경을 지니고 있다 라는 설계자의 설명은 이 작품의 성격을 잘 설명해 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가지는 실질적인 어려움들(가령 외부 공간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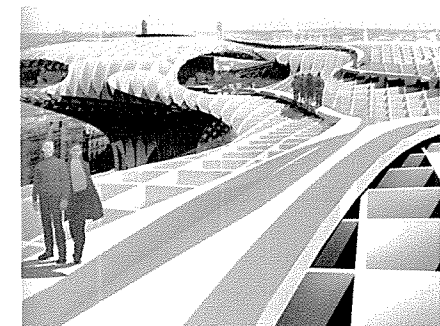
강한 풍압 발생 등)을 마소는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볼케이노 스타디움」도 단순하고 과감한 그의 설계 경향을 잘 보여준다. 축구경기장을 마치 초원에 생성된 거대한 크레이터(분화구)처럼 만든 후 그 위에 거대한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도우넛 모양의 지붕들을 띄워 놓았다. 그의 재치를 읽을 수 있는 이 작품에서도 심플하고도 개념적인 전체 형태 속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는 세심한 설계가 이루어졌다.

■ 유르겐 마이어 H.(Jurgen Mayer H.)

1996년 베를린에 설립된 유르겐 마이어 H. 사무소는 건축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교차하는 작품에 초점을 맞추어 작업하고 있다. 최근작으로는 독일 오스트필덴의 「쉐룬하우저 파크 시청사」, 포르투갈 도크 지역의 마스터플랜, 칼스루에 대학의 학생회관, 스페인 세빌리아의 엔카르나시옹광장의 재개발「Metropol Parasol」 등이 있다. 도시계획에서 건축, 인스톨



쉐룬하우저 파크 시청사



Metropol Parasol